

“또 해냈다”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지난 5일 아르헨티나 산타에탈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전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대표팀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직전 대회인 2019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 상대는 이탈리아로 정해졌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준결승전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로 장소를 옮겨 9일 오전 6시에 kick오프한다. /연합뉴스

윤영철 ‘QS’·박찬호 마수걸이 대포 ‘빛바래’

KIA, SSG戰 1대2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5할 승률 복귀에 실패했다. KIA는 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선두 SSG와의 경기에서 득점 찬스를 번번이 무산시키며 1-2로 패했다. 시즌 전적 23승 25패. KIA의 고졸 투수 윤영철은 개인 한 경기 최다인 7이닝을 소화하며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타선의 침묵 속에 시즌 2패(3승)째를 떠안았다. KIA는 1회초 1사에서 연속안타와 볼넷으로 내준 만루 위기에서 하재훈에게 적시타를 맞고 2실점했다. 소크라테스가 몸을 던져 잡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원바운드로 캐치한 것으로 판명됐다. 반격에 나선 KIA는 4회 말 선두타

자 박찬호가 상대 엘리야스를 상대로 마수걸이 대포를 쏘아 올리며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이어진 타석에서 소크라테스가 안타로 출루하며 기세를 이어가는 듯했으나 소크라테스가 견제사하며 흐름이 끊겼다. KIA는 7회 무사 1, 2루 역전 찬스를 잡았다. 이창진의 외야수 플라이 아웃으로 1사 1, 3루가 됐고 변우혁의 투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 김선빈이 홈으로 들어오다 런다운에 걸려 또다시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KIA는 8회말 2사후 소크라테스가 안타를 만들며 동점 찬스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최형우의 2루타성 타구가 호수비에 걸리며 아쉬움을 남겼다. KIA는 9회에도 SSG 마무리 서진용을 상대로 2사 만루 찬스를 잡았으나 기대했던 류지혁의 한방이 터지지 않아 1점차 패배를 당했다. /박희종기자



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7회 말 1사 1, 3루에서 8번 변우혁의 투수 앞 땅볼 때 홈으로 뛰어들었던 KIA 3루주자 김선빈이 SSG 포수 김민석에게 태그아웃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전천후 육상트랙 조성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표지판을 제막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진천 육상트랙 준공식 참석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트랙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표지판을 제막하며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장재근 선수촌장 등이 참석했다. 전천후 육상트랙은 6천500㎡ 규모의 막 구조물을 설치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눈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도 선수들의 트랙 훈련이 가능하다. 캔탈레비 구 조물의 육상훈련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성됐다. 한편, 전갑수 회장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유익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종기자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대,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 우승 합작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UIPM 2023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 경기에서 우승한 전용대(광주시청과 김선우(경기도청)가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이번 시즌 월드컵 개인전에서 4월 2차 대회 은메달, 3차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전용대는 2년 연속 우승을 노린 월드컵 파이널 개인전에서 16위에 그쳤으나 계주에서 아쉬움을 풀었다.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흐름 탄 광주FC “승리는 계속된다”

오늘 안방서 수원삼성 상대 승점 정조준



광주는 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그야말로 최상의 흐름이다. 지난 라운드 ‘난적’ 포항스틸러스를 홈으로 불러들인 광주는 상대의 자책골과 함께 두현석, 엄지성, 안영규의 득점에 힘입어 4-2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FA컵 포함 4경기 무패에 3연승. 여기에 2라운드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되는 등 광주의 뜨거운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는 자신감은 물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만큼 홈 연전에서 승리로 순위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 역시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이 터졌다. 코너킥에서 아사니가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자책을 유도함과 동시에 풀백 두현석이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환상적인 갑자차기 슛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파죽의 연승을 달리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수원삼성전 승리를 향해 달린다. 팀의 에이스 엄지성도 긴 침묵을 깨고 득점을 기록, 자신감을 끌어올렸으며 주장 안영규는 최근 3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만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수비도 마찬가지다. 티모는 안영규와 함께 안정된 수비로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이순민과 정호연의 중원진은 많은 활동량과 부지런한 수비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상대 수원은 K리그의 전통있는 강호이자 정상근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베테랑 엄지훈을 비롯해 김보경, 이기제, 안병준, 정승원, 고승범, 최성근 등 공수에 걸쳐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수원은 명성과 다르게 현재 부침을 겪고 있다. 2승 2무 12패에 최근 3연패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의 올 시즌 첫 승의 제물이기도 하다. 광주는 자신감이 떨어진 수원을 상대로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여 득점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수원을 꺾고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종기자

‘세리에A 수비왕’ 김민재 금의환향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서 최고 수비수로 우뚝 선 ‘수비왕’ 김민재 나폴리가 트로피를 들고 금의환향했다. 눈부신 한 시즌을 보낸 김민재는 6월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여름 페네르바체(튀르키예)에서 적을 옮긴 김민재는 세리에A에 데뷔하자마자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A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데 이어 10월엔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 선정 이달의 선수’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기량을 인정받았다. ‘철거동’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민재는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서는 데 데 든한 일바탕이 됐고, 리그를 빛낸 ‘최우수 수비수’ 트로피까지 따냈다. 2018-2019 시즌부터 시작한 포지셔널 MVP 수상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우수 수비수로 뽑힌 김민재가 처음이다.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올해의 팀’에도 이름을 올리고 리그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바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부 종합시상식에서 4연속 종합우승을 이끈 문병영 한국 남자부 감독(단상 왼쪽 세번째)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한국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4연패

금3개·은1개 획득 ‘종합우승’ 남자 54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준이 남자부 MVP로 선정됐다. 이의 배준서(58kg급·강화군청), 강상현(87kg급·한국체대)이 금메달, 진호준(68kg급·수원시청)은 은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여자부는 8개 체급 모두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한 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자부 대회가 시작한 1987년 이래 최장이다. /연합뉴스